

# 司書教師生活 3個年을 回顧하면서

朴 容 料

城東高等學校

## I. 머리에 붙여

司書教師로서 先輩이시고 學兄되시는 S 선생님으로부터 「도협월보」 3月호에 校園圖書館 관계 特輯을 낸다고 했 병아리에 불과한 小人에게 原稿 부탁이 있기에 順從하는 뜻으로 應諾은 했으나 拙稿로 因하여 우리 의 代辦誌에 오독이 되지나 않을까 심히 念慮됩니다. “사서 고생한다”는 館言(?)에 해당하는 이 職을 왜 擇하게 되었나를 곰곰이 생각하노라니 하늘의 뜻이라고 결론지을 수 밖에 없겠습니다. 나의 Ultra-Vires의 領域에 해당하는 ××시험에 長期間 投資하다보니 圖書館과 깊은 因緣을 맺게 되어 결국은 司書教育院의 문을 두들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1975年 4月 國防大學院 圖書館으로 부터 校園圖書館으로 옮긴지 꼭 3년이 되어가는 현시점에서 3개년을 회고하니 참으로 많은것을 배웠나 봅니다. ××시험에 쏟던 그 情熱을 학생들과 함께 나누면서 학교도서관 선배나 협직에 계신 동료들의 數年에 걸친 떠져온 經驗談에서 나온 술한 論文·主張의 主內容이 校園圖書館의 法的地位 및 運營上의 諸般 問題點의 提起와 그 解決의 模索에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筆者は 그 분들의 고충과 노고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굽하지 않고 校園圖書館界를 지켜 온 끈기와 투지에 뜨거운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 필자는 그 주장 자체가 누구를 向한 것이며 누가 그 精誠을 눈여겨 보아줄지가 의문이었고 또 當局이 그것을 과연 얼마나傾聽하여 왔는지 의심되었었습니다. 끈기있는 주장도 좋겠으나 要는 現職에서 校園圖書의 중요성을 실제 活動을 통하여 마스터(最高管理層)와 끊임없이 부딪치고 또한 司書教師를 우습게(?) 여기는 무리들에게 뿐만있게一擊을 加해 봄이 더 낫지 않을까? 이제 필자의 殘忍했던 過去를 賖罪하려는 뜻으로 東奔西走하면서 보고 느낀 몇 가지를 적어 볼까합니다.

## II. 나를 죽이고 활무지를 개척하다

(1) 첫해(1975학년도)

1975년 4월 19일 부임하여 보니 무엇부터 먼저 손을

대어야 할지 나의 無能함이 絶望을 안고 왔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 놀고 國錄을 타먹을 수는 없는 노릇, 우선 校園圖書館運營의 正常化 計劃을 세워 K.D.C.에 의한 資料의 총정리를 始作했습니다. 내 손에 의해 藏書가 하나씩 裁判되어 감에 따라 도서관은 약간의 活氣를 띠기 시작하였고 이렇게 되자 司書教師의 職務範圍가 어디까지며 權限은 또한 무엇인가에 눈 뜨게 되었다. 그 해 여름 放學이 끝 날 무렵에야 겨우 3천여권의 자료가 정리되었는데 9月 2학기에 접어들자 또 한 차례의 陳痛을 겪게 되었다. 마스터의 交替에 따른 妙한 心理的 重壓感, 第21回 讀書週間의 始作과 圖書館豫算의 不足등이 그것이였다. 教職經歷이 日淺한 필자에겐 1학기도 은전히 모셔보지 못하고 헤어지는 申集浩 校長 선생님의 후임으로 오신 李昌鉉(現 서울 특별시 教育監) 校長 선생님의 教育方針의 理解가 어려웠고, 생애 처음으로主管해 보는 行事인지라 그結果가 과연 바람직스러울지 꽤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行事種類의 多樣化와 全 教職員을 참여시킨 행사내용의 실질화로 무사히 끝났다. 學生 1人當 200원도 못 되는 圖書費는 벌써 바닥이 났기에 追更이 不可避했고 또 司書教師 혼자로서는 결대적인 力不足, 學生圖書委員들의 도움을 입지 않을 수 없는 校園圖書館의 實情인지라 이들을 어떻게 指導해야 할 까도 司書教師가 겪어야 할 또 다른 苦衷이 아닐 수 없었다. 아들같은 도서 위원들에게 긍지와 꿈을 심어주고 愛館心을 함양 시키고 그들의 能力を 最大限으로 發揮시켜 줄 方案은 무엇인가? 이들을 위하여 교의 활동 5개년 계획을 수립 일차적 활동으로 각 級 圖書館 見學을 실시했다(高大, 成均館大, 國防大院院, 서울高, 梨花女高 및 國立中央 도서관) 11月에 들어 처음으로 圖書館大會와 제1회 도서관인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학교도서관 관계 教師先輩들과 접촉하게 되었다. 겨울 放學中에는 “放學中 도서관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실시했다. 겨울 放學中에는 苦役이 말이 아니었다. 煙房施設의 不備와 水道不通이 圖書館을 겨울내 冬眠케 하였다. 이러한 與件가운데서도 해야 할 일은 하여야 하겠기에 古物이 다른 (석탄을 치파면 온통 室內가 煙氣투성이로 化하는)

단로위에 自己의 쿠킹 솜씨를 자랑하는 도서위원회이 雖 여주는 라면을 함께 나누면서 열람용 목록을 등사하였고 年刊 圖書館 會誌 “성도공우” 제3호를 發刊했다.

날이 갈수록 實力이 向上 된다고 뽐내는 도서위원회들의 「라면」 요리 솜씨자랑하는 광경을 옆에서 지켜 보노라니 그 옛날 高等學校 때 國語課에서 읽었던 ‘爐邊의 鄉思’ 가 떠 오르곤 했다. 그 情趣 뉘가 맛보아 알랴! 한 겨울에 教科書 供給作業은 이만 저만한 어려움이 아니었다. 주고 받는 일에 승강이질도 문제거니와 數의 術이 또한 鬼神이 곤할 일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赶任 첫해를 決算하면 校內의으로는 學校圖書館의 本質的 機能中 가장 중요한 讀書指導를 손 대지 못한 채 한 학년을 마쳤고, 校外의으로는 學校圖書館 全體共同關心事에는 눈을 돌릴 여유도 없이 바쁘게 헤매었다고 생각한다.

## (2) 제2년째(1976 학년도)

教科書供給의 뒤치 닥거리와 圖書館豫算(學徒 護國團費中) 編成등으로 學年은 끝나고 새 學期를 맞이 하였다. 3月初 겨울 放學中 圖書館 運營結果報告와 함께 ’76학년도 圖書館 運營計劃(讀書指導計劃 포함)을 기안을지로 장장 10매를 매워 提出하였던 바 學校 最高管理層의 司書教師와 圖書館을 보시는 態度가 일변하였다. 그 内容은 대충 校內의으로는 新入生의 讀書指導, 도서관 시설의 보완, 도서위원회의 選任 指導구정, 열람실의 운영方法, 資料의 完全정리와 구입계획, 年間 讀書指導計劃이고 校外의으로는 한국도서관협회 및 한국도서과학회와의 유대 강화, 각 級 圖書館의 見學등으로 學校圖書館의 弘報活動과 함께 學生圖書委員들의 社會教育에 대한 계획등이였는데 폐 奏效하였다. 그렇잖아도 學校圖書館과 學生 讀書指導에 대한 關心이 校長 중 가장 強하신 분중 한 분이신지라 일차적으로는 司書教師의 活動에 대한 期待를 걸어보게 되었다. 이 학년도에는 1學年에 대한 수업도 맡은지라 圖書館 教育, 讀書敎育은 보다 容易하였다. 3月 中旬에 圖書委員을 선정하여 校長의 도서위원회 任命狀 授與式도 가졌다. 4月에 들어서자 圖協과 市 教育委員부터 圖書館 週間行事計劃이 시달리었는데 이것은 또 무엇인가 이것 또한 필자 생전 처음主管해 보는 일이라 昨年の 제21회 讀書週間行事를 맞았을 때와 같은 心情, 그러나 그 옛날 公務員 時節 술한行事를 주관해 봤던 때를 회상하면서 校內·外行事로 구분하여 前者は 圖書館行事에 무관심한 墓性(?)에 젖은 敎職員들로 하여금 이行事에 參與하라고 後자는 圖書委員을 中心으로 한 各級 圖書館의 見學이였다(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市立東大門도서관) 讀書指導는 新入生에 대한 課題讀書에 始作, 1·2學年으로 하여금 每月 1卷이상의 良書를 읽도록

록 하고 매 월말에 그 달의 讀後感과 다음 달의 讀書計劃을 作成 提出하여 이를 檢閱함으로써 出帆하였다. 그런데 이게 쉬운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꾸준한督勵와 指導로 學生들의 讀書量은 점차 늘어갔다. 好事多魔라 하더니 5月 青少年달에 뜻 하지 않던 일이 발생하였다. 하나는 事務室內에 둔 目錄카아드 作成 및 간단한 油印物 作成用 小型 등사기(이는 필자 손으로 친히 만든 것임) 한 세트의 失物事件이고 다른 하나는 열람실내에 비치해 둔 學習參考書類 100餘卷의 盜難事件이었다. 前者는 그 후 1週間간에 小包로 餓悔의 글과 함께 되 돌아왔고 後자는 다른 사건과 함께 곧 解決이 되었다. 필자는 이 일들로 因하여 깊은 教育的省察이 있었다. 아! 믿는 도끼에 밭 찍힌다드니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개탄도 해 봤으나 이것 또한 나의 經驗不足, 賦어버려도 모른 척하고 사랑으로 지켜 봤드라면 事件의 主人公에게 마음의 傷處나 입하지 않고도 모든 것은 正常으로 復歸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後者の 경우는 엉청난 危險을 무릅쓰고 2층까지 기어 올라와서 창문을 열고 侵入한 主人公의 冒險心, 또 窃取한 冊들을 고스란히 自己집 창고에 保管해 둔 心理—단순한 所持慾—등은 青少年에게서만 찾아 볼 수 있는 일임을 알자 教師의 學生에 대한 指導가 얼마나 세심해야 하고 또한 個別의이어야 하지 않을까 痛感했다.

점차 圖書館에 관심이 깊어가자 5月 下旬에는 IFLA 大會에도 참석하게 되었다. 高等學校 圖書館이 國際大會에 참가한다는 일이 보통 일은 넘는다고 생각되었기에 最高管理層의 보는 눈도 달라졌다. 午前에 授業하고 오후에 참석하고 어떤 날은 그 反對 현상으로 1週間을 바쁘게 보내었다.

6月에 들어서니 벌써 ’77학년도用 教科書의 注文이 시작되고 讀後感 綜合評價가 있었다. 7月에는 여름 放學中 도서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특히 未盡된 열람용 목록카아드의 完備計劃이 中心이 되었다. 그리고 매 월말에 調查發表해 온 讀書順位의 1學期末 綜合順位(20位까지) 조사 발표하여 줌으로써 학생들의 放學中 독서계획에 참고하게 하였다.

8月中旬에는 그간 관계해 온 讀書科學會가 개최한 IRA의 讀書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크게 느낀 점 하나는 우리나라에는 언제 正常의 學生讀書指導가 이뤄지겠는가? 이를 위한 機構組織은 또한 언제 體系化 될 것인가? 였다.

9月에 들어서자 讀書週間行事準備에 눈·코 를 사이가 없었다. 우선 開校 記念日을 期하여 전개한 Book-Drive 운동으로 1千餘卷의 圖書가 寄贈되었으며 도서관 최고 이용자, 最多讀者, 표어·포스터 우수작, 우수독후감에 대한 施賞과 圖書委員들의 見學(大韓出版

文化協會, 藏書閣)과 放學中 製作한 열람용 목록카아드 16,000여매의 展示였다.

2學期에 들어서니 不足한 열람석의 자리다툼은 드디어 利用成績에 의한 指定席制를 創設해 하였다. 이렇게 되니 도서위원회의 地位는 더욱 둘보이게 되었고 그들 역시 상당한 自負心으로 奉仕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그 해도 저물자 「겨울 방학중 도서관 운영계획」을 또 한번 세우게 되었다. 赶任 두번째 해를 決算해보니 첫 해보다는 상당한 自身의 進步와 도서관 본래의 機能발휘에 어프로우치 했다고 느껴졌다.

### (3) 제3년제(1977학년도)

‘금년에는 몇 가지 운영해 봐야지’ 하는 굳은 意志下에 「'76학년도 도서관운영결과보고 및 '77학년도 도서관 운영계획」을 문제점의 改善方案의 提示와 함께 學校長의 核可를 얻어 學年初부터 強하게 밀고 나갔다. 이 해에는 讀者와 圖書館의 能力誇示에 主眼點을 두었다.

우선 學校圖書館의 主機能인 讀書指導의 徹底化를 위한 方案이 강구되어야 하겠기에 독서흥미 誘發계획을 세우고 피나는 努力を 傾注했다. 그 實例는 「今週의 讀書資料 紹介」라는 타이틀로서 各種 읽을거리의 油印物로 만들어 교직원과 각班에 配布하고 게시판에 게시했다.

또한 제23회 도서관주간 때는 學父母까지 參加시킨 優秀 讀後感 募集을 해 봤더니 3,40代 자모의 應募도 있었는데 往年の 讀書實力은 유감없이 발휘하여 入選되어 學校長의 賞狀수여식까지 있었다. 또 每月末에 통계로 나타난 月 讀書順位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刺戟劑가 되어 讀書하는 학생數의 增加를 보였다.

이 해도 계속하여 도서위원회의 各級도서관 견학은 (도서관 주간증) 시작되어 東國大와 국립중앙도서관 및 大法院 도서실과 大法官會議室, 刑事裁判 法廷방청을 하였으며 J辯護士 法律事務所도 見學했다.

특히 잊지 못 할것은 「여름 방학중 도서관 운영계획」의 하나로서 도서위원 14名과 함께 南海岸一圓의 탐방이었다.

馬山 輸出自由地域, 巨濟島 玉浦 現代造船所 건축현장, 海星高等學校, 只心島 ××××초소의 견학과 臥峴해수욕장 캠핑등으로 그동안의 心身의 疲勞를 마음껏 풀기회를 가졌다는 점이다.

9月에 들어오자 제23회 도서주간을 맞게 되었는데 1學期부터 준비해온 「全國各大學論文集 및 各國語別定期刊行物展示會」와 金炳元 선생님의 招請 讀書講演, 圖書館報 創刊號의 發刊, 도서관 관계 各種 施賞, 昨年의 創刊號에 이어 學校 英字新聞에의 讀書關係 글 投稿, 제2회 Book-Drive 운동 전개(600여권 기증)등으로 有終의 美를 거두었다고 생각된다.

한 편 도서위원회의 年中 見學計劃은 不變, 延世大, 成均館大 및 國會圖書館의 見學과 國會傍聽이 있었고 필자

자 자신은 第1回 現代圖書館講座에 참가 頽落해버린知識과 教養을 쌓을 수 있었다는게 學校 授業現場과 관련하여 더 없는 收穫이었다. 끝으로 필자의 職務와 관련된 것 중 가장 문제점을 남겨 준것은 教科書의 供給體制이다. 지금도 이것 때문에 필자는 마라돈式 日課의 연속이다.

今年에는 도서관 운영을 무엇으로 베워 나갈 것인가 昨年에 試圖에 그쳐 버린 Biblio-therapy을 통한 問題兒 指導를 해 볼까하며 第14回 圖書館週間에는 世界各國 高等學校用 教科書 展示會를 그리고 讀書週間에는 禁書目錄(不穩文書目錄) 模擬刑事裁判을 열고 싶다.

### III. 하고 싶은 말

필자의 쓴 過去를自身과 家庭父母님들께 賞罪하려는 뜻에서自身을 온 통 죽이는 生活로 치닫는中學校圖書館生活, 司書教師의 立場에서 너무나 할 말이 많다.

첫째로 學校圖書館 司書教師에 대한 學校 最高管理者(層)의 特別한 관심과 現實的인 配慮가 있어야 하겠고 同僚教師(특히 擔任선생님)의 물이해, 방관적 態度의 止揚이 아쉽다. 그러나 3年을 한결같이 圖書館人으로서, 司書教師로서 일하여 왔을 때 그들은 모두 承服하고 말았다는 생생한 經驗으로 밝은 내일을 期待하고 싶다.

둘째, 司書教師는 萬能者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다. 왜 無能하다는 評을 듣고 또는 無視를 받아야 하는가?

셋째, 司書教師는 물려서지 말자. 필자의 學校圖書館 3年의 生活에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이 바로 司書教師의 一般教師로의 轉向이다.

苦되고 어려운 것을 버리면 그 分野 그 職務 누가 誠意껏 다 해 주겠는가? 理由야 많고,多少 妥當性도 가지겠지만 圖書館 全體의 發展에 상처를 주는 行爲는 삼가해야 하지 않을까? 同志들이여 다음의 구사로 慰勞받고 싶다.

1. 비 바람 몰아치는 밤이 있기에  
등 네에 태양이 한결 빛난다  
어둠을 모두다 뚫고 나가면  
오리라 틀림없이 희망의 날이  
오리라 틀림없이 희망의 날이
2. 어둠이 겹쳐 쌓인 날이 있기에  
맑은 날이 더 한층 우러 빚인다  
가시밭을 모두다 헤쳐 나가면  
오리라 틀림없이 즐거운 날이  
오리라 틀림없이 즐거운 날이

마지막으로 讀書指導는 「讀書力 開發指導」와 「良書 읽고 讀後感 쓰기지도」로 區分하고 이를 併行 실시하였으면 한다.